

조선시대 『주자대전』 선집서의 간행과 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ation and Composition of *JujaDaejeon* Anthologies in the Joseon dynasty

최 경 훈 (Kyunghun Choi)**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주자대전』 선집서 구성의 양상 |
| 2. 『주자대전』의 간행과 구성 | 5. 맺음말 |
| 3. 『주자대전』 선집서의 편성과 간행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 학자에 의해 편성된 『朱子大全』 선집서를 대상으로 간행과 구성, 편성 방식, 수용 양상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16세기에 거질의 『朱子大全』이 간행되자 이를 수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집서의 편성과 간행, 학습이 이어졌다. 『朱子大全』 선집서는 조선 전기에 6종, 조선 후기에 7종 등 모두 13종이 간행되었다. 선집서의 편성은 이황의 『주자서절요』를 기점으로 정경세의 『주문작해』로 보완되고, 송시열의 『절작통편(보유)』로 종합되는 흐름을 보였다. 『朱子大全』에는 詩를 제외하면, 3,645편의 작품이 있으며, 그 가운데 13종의 선집서에서 모두 1,734편이 선정되었다. 누적 선정 횟수가 높은 작품의 주제는 국왕의 덕목과 자세, 정책 제안, 인재 등용, 신하의 의무, 역사 인물 평가 기준, 금과의 화친 반대와 영토 회복, 학문 토론 등이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외국 서적의 수용과 주자 문집의 작품 수용 연구 분야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ublication, composition, method of composition, and acceptance patterns of *JujaDaejeon* anthologies edited by Joseon scholars in the Joseon dynasty. When a large amount of *JujaDaejeon* was published in the 16th century, anthologies of *JujajaDaejeon* was compiled, published and learned as a way to understand it. A total of 13 kinds of *JujajaDaejeon* anthologies were published, including six kinds in the early Joseon period and seven kinds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the composition of main anthologies showed a trend that was supplemented by Jeong Gyeong-se's *Jumunjakhae* from Lee Hwang's *Jujaseojeolyo*, and aggregated into Song Si-yeol's *Jeoljaktongpyeon(boyu)*. *JujaDaejeon* consists of total 3,645 works except for poems. Among them, 1,734 works were selected by 13 anthologies. The theme of a work with a high cumulative number of selections is the virtue and attitude of the king, policy proposals, the appointment of talent, the duty of subjects, criteria for evaluating historical figures, opposition to harmony with Jin and territorial restoration, and academic discuss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meaningful in the field of the research on the acceptance of the foreign books and acceptance of the Zhu Xi's works in the Joseon dynasty.

키워드: 주자대전, 주자서절요, 주희, 선집서, 서적 수용 양상

JujaDaejeon, *JujaseoJeolyo*, Zhu Xi, Anthology, Book Acceptance Pattern

* 본 논문은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계명대학교 고문헌 사서(lilimo95@daum.net / ISNI 0000 0004 7878 6760)

논문접수일자: 2020년 4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0년 5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5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435-455, 2020.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2.435>

1. 머리말

朱子는 수많은 저술을 남기며 남송 이전의 유학을 집대성하여 성리학을 정립한 인물로 평가된다. 주자의 저술은 성리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서적으로 인식되어 조선에서 다수 간행·보급되었고, 국왕의 학습, 과거 시험 과목, 가정의례의 준거, 향촌 사회의 운영 등에 활용되면서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조선에서 주자는 성리학을 대표하는 중심인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러한 인식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심화, 지속되었다.

주자 저술의 보급과 확산, 활용이 지속되면서 그의 삶과 학문이 담겨 있는 문집에 대한 수요도 증대되어 121권에 달하는 『朱子大全』은 1543년 을해자본으로 처음 간행되었다. 『주자대전』의 간행은 조선 성리학자에게 주자를 이해하기 위한 큰 과제를 던진 일대 사건이었으며, 이황 등 학자들은 서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첫 단계인 選集 방식의 초략본, 즉 『朱子書節要』 등의 선집서를 편성하여 학습과 교육에 활용하였다. 121권에 달하는 분량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을 선별하는 選集의 방식은 『주자대전』을 이해·수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에는 뜻을 풀이하는 주석서와 자신의 방식으로 내용을 해석하는 해석서의 편찬으로도 이어졌다(이향준 2012, 157).

『주자대전』은 중국에서 전래된 여러 문헌 가운데 조선에 가장 영향을 준 문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성리학자들은 성리학을 집대성하여 공맹을 계승한 성현으로 주자를 인식하였고, 『주자대전』은 그의 문집이었기 때문에

『주자대전』을 학습·공유하는 한편, 수록된 작품을 선택하여 책자로 간행·보급하면서 주자의 사상을 수용하려고 하였다.

『주자대전』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이황의 『주자서절요』를 중심으로 일부 개별 選集書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강문식 2007; 송희준 2014; 권용인 2015 등). 그러나 개별 서적에 대한 연구에 한정된 면이 있고, 선집서 전반에 대한 통시적 고찰과 선집서간 상호 관련성, 선정 작품에 대한 비교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자대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조선 성리학자가 편성·간행한 선집서 13종에 대하여 편성과 간행, 선집서 상호간의 관계, 작품의 수용 방식과 선정 경향 분석 등 『주자대전』의 작품이 선집서에 수용되는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주자대전』의 운문부(권1-10)는 제외하고 산문부에 대한 선집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주자대전』의 간행과 구성

2.1 『주자대전』의 전래와 간행

『주자대전』의 우리나라 전래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주자 문집과 관련하여 1429년 조정에서 여러 서적을 널리 구할 때 안동에서 『朱文公集』 32권을 올렸다는 것과 1451년 명나라로 가는 사신단의 구서 목록에 『朱文公集』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¹⁾ 『자치통감강목』 등 주자의 다른 저술들이 경연에서 진강되고 여러 차례의 간행·학습은 물론 주석서까지 편찬되면서 국왕을 비롯한 학자들의 필독서가 되었지만, 15

세기에 주자의 문집은 구서 목록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 희귀본이었다.

주자 문집의 간행에 대한 요구는 종종이 즉위하고 사림이 정계로 진출한 16세기에 제기되었다. 1515년에 홍문관 부제학 김근사가 『朱文公集』 등 홍문관에 1건씩 있던 18종의 서적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자고 건의하여 국왕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흉년으로 진행되지는 못하였고, 기묘사화로 물러나 있던 김안국이 교서관 제조로 복귀하면서 1543년에 비로소 주자 문집의 정본인 『주자대전』이 간행되었다. 15세기에 주자의 문집은 구하기 어려운 희귀본이었으나 성리학이 저변 확대되고 주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문집에 대한 간행 요구가 이어졌고, 16세기 기묘사화 후에 사림이 정계에 본격적으로 복귀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였다.

1543년의 초간본 『주자대전』은 금속활자인 을해자로 찍혔는데, 당시 을해자는 100년 가까운 사용으로 보충된 글자가 다량 혼입되어 있어 인쇄 품질이 좋지 못하다. 소량 인쇄라는 활자 인쇄가 가지는 한계로 널리 보급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 초간본은 중국 문물을 접할 수 있는 일부 계층만 볼 수 있었던 주자의 문집을 백지의 조선 성리학자들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항과 같은 학자는 이 책을 접한 후, 서간문 선집서인 『주자서절요』를 편성, 후학의 교육에 활용하면서 『주자대전』 학습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후 소량 인쇄라는 공급의 한계와 학습 과정에서 발견하는 오류 등이 제기되면서 교서관

제조 유희춘의 교정을 거친 『주자대전』이 1575년에 다시 간행, 내사되었다. 이 책은 마모된 글자를 대량 보충한 보주을해자로 찍어 글자가 선명하고 인쇄 품질이 좋으며, ‘교정 범례’까지 마련한 체계적인 교정으로 정본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활자 인쇄로 105부를 찍었고, 1592년 발발한 임진전쟁으로 유통량이 부족하게 되었다.

17세기 들어 주자에 대한 이해가 저변 확산되는 가운데, 조선과 후금의 관계를 주자가 살던 남송과 금나라의 관계와 동일시하는 시각에 따라 주자의 문집인 『주자대전』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 이에 원두표가 평소 완질을 수습하여 교정을 보았던 『주자대전』을 전라감사로 부임하여 전주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원두표의 목판 간행은 전존본을 수습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정을 진행한 만큼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주자대전』의 대량 보급을 가능하게 하여 수요에 부응하면서 조선 후기 주자에 대한 이해의 확산에 기여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 판은 잦은 인쇄로 손상된 책판에 대한 보충 판각이 계속되면서 이후 100여 년 동안 공급되다가 18세기 중반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홍계희는 평소 기존의 『주자대전』에 오류가 많다고 생각하여 교정을 보던 가운데 기존 책판이 화재로 소실되자 영조의 윤허를 받아 교정을 마무리하면서 1771년에 조선 마지막 『주자대전』이 다시 전주에서 왕명으로 간행되었다. 홍계희 또한 ‘개간 범례’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교정을 하였으며, 기존 문집에 없던 주자의

1) 『世宗實錄』 卷44, 世宗 11年 6月 27日(壬寅); 『文宗實錄』 卷8, 文宗 1年 7月 24日(庚申)

글을 찾아 『유집』 2권으로, 행장 등 주자 관련 자료를 「부록」 12권으로 보완하여 완결판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1543년에 처음 간행된 『주자대전』은 기존 판본을 그대로 다시 간행하는 차원을 넘어 스스로 孔孟을 이은 주자의 계승자가 되겠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오류를 바로잡고 책을 널리 보급하려는 노력의 연속이었다.

2.2 『주자대전』의 체제와 구성

1543년 처음 간행된 초간본 『주자대전』은 목록 2권, 원집 100권, 속집 11권, 별집 10권 등 121권 9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충재종택본). 주자의 문집은 주자를 향사한 복건의 건안서원에서 1239년에 王莖가 정집 100권을 간행한 이후, 1245년에 王遂가 속집 10권, 1250년 徐幾가 속집 1권, 1265년 余師魯가 별집 10권을 추가하면서 121권의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건안서원판으로 완성되었다(최채기 2012, 20). 이 건안서원판은 서명이 '晦庵先生朱文公文集'이었으며, 명대의 天順版(1460), 嘉靖版(1532), 萬曆版(1605) 등으로 이어졌다. 그 가운데 賀沈·胡緝이 중간한 天順版에서만 서명이 '晦庵先生朱子大全'으로 변경되었고, 호즙의 중간 서문을 붙였다. 조선에서 간행된 주자 문집은 서명이 '주자대전'이고, 1460년 천순판을 중간한 胡緝의 '重刊朱子大全序'가 수록되어 있어 1460년 명나라의 천순판을 저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간행되는 『주자대전』은 교정을 통한 보완이 있을 뿐 모두 이 책의 중간본이다.

『주자대전』에는 정집 권1부터 권10까지와 별집 권7의 일부에 賦·詩·樂府 등 운문이 있고, 나머지는 산문이다. 운문부를 제외한 『주자대전』의 체제와 구성은 <표 1>과 같다.

『주자대전』에는 주자가 남긴 작품들이 망라되어 있다. 운문부를 제외한 전체 작품 수는 3,645편이며, 분량은 5,000장이 넘는다.²⁾ 수록 작품으로 보면, 서간문이 가장 많은 2,361편을 차지하여 64.8%가 되며, 분량으로는 절반이 넘는 52.8%이다. 서간문이 많다는 것은 주자가 평소에 물음에 답하거나 의견을 밝히는 등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소통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6세기가 비록 성리학이 정착되는 시기이기는 하였지만, 『주자대전』이 한정적으로 공급되었고, 121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은 수용자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를 접한 조선 학자들은 필요에 따라 특정 작품들을 뽑아서 편집하는 선집의 방식으로 책자를 만들어 강학과 학습의 자료로 적극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3. 『주자대전』 선집서의 편성과 간행

3.1 조선 전기 선집서

『주자대전』이 몇 번의 간행 시도 끝에 1543년에 간행·보급되자 이황을 중심으로 선집서 편성을 통한 연구·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주자대전』이 간행되기 이전에 중

2) 분량은 반엽 10행 18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1장에 360자가 되고, 5,000장으로 계산하면, 비록 빈칸이 있지만, 180만자가 되어 방대한 분량임을 알 수 있다.

〈표 1〉 『朱子大全』 체제와 구성

	권차	구분(작품수)	편수		장수	
			수량 (편)	비율 (%)	수량 (장)	비율 (%)
正集	11-12	封事	6	0.2	79	1.6
	13-14	奏筭	29	0.8	72	1.4
	15	講義·議狀·筭子	6	0.2	52	1.0
	16-19	奏狀	65	1.8	205	4.0
	20-21	申請	55	1.5	94	1.9
	22-23	辭免	145	4.0	110	2.2
	24-64	書	1,710	46.9	2,321	45.7
	65-74	雜著	108	3.0	520	10.2
	75-76	序	69	1.9	97	1.9
	77-80	記	81	2.2	146	2.9
	81-84	跋	281	7.7	176	3.5
	85	銘(22), 箴(2), 贊(9), 表(13), 疏(4), 啓(14), 婚書(3), 上梁文(1)	68	1.9	40	0.8
	86	祝文	69	1.9	26	0.5
	87	祭文	42	1.2	34	0.7
	88-89	碑	10	0.3	86	1.7
	90	墓表	12	0.3	33	0.6
	91-94	墓誌銘	53	1.5	176	3.5
	95-98	行狀	16	0.4	286	5.6
	99-100	公移	41	1.1	79	1.6
	續集	속1-11	書(466), 跋(4)	470	12.9	219
別集	별1-6	書	185	5.1	144	2.8
	별7	記(2), 祝文(2), 祭文(2), 題跋(18)	24	0.7	10	0.2
	별8	雜著(1), 陳請(1), 啓(4)	6	0.2	11	0.2
	별9-10	公移	94	2.6	65	1.3
		합계	3,645	100	5,081	100

국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계층에서는 중국판 주자 문집을 구해볼 수 있었고, 문집에서 필요에 따라 작품을 선별하여 책으로 엮어 간행하기도 하였다. 『주자대전』 간행 이전에 편성된 선집서로는 『백록동규해』와 『주자봉사초략』이 있다.

『朱子封事抄略』은 『주자대전』의 권11부터 권14까지 수록된 35편의 封事·奏筭·筭子 등 주자가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15편을 선

별한 2권 2책의 목활자본이다. 이 책은 본문만 수록되어 있어 편집자를 알 수 없으나 ‘중실의 이정숙이 정축년(1517)에 『二程封事』와 『朱子封事』를 개인적으로 인쇄하여 올렸다.’는 기록³⁾이 있고, 동일 활자로 찍은 『이정봉사』와 함께 전하고 있어 편자를 이정숙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정숙은 중종의 정치에 도움이 되고자 자신의 말보다 성현(주자)이 국왕에게 올린 봉

3) 『己卯補遺錄』 卷下 『詩山副正傳』

사를 선별하여 책자를 만들어 올렸던 것이다.

『白鹿洞規解』는 박영(1471-1540)이 『주자대전』 권74에 수록된 『白鹿洞書院學規』를 뽑고 여기에 간략한 주해를 붙인 것이다. 백록동은 이발(唐)이 은거하여 서원을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였던 곳으로, 1179년 남강군지사로 부임한 주자는 서원을 증건하고 177자로 된 서원 규율인 『백록동서원학규』를 지었다. 박영은 '학문하는 선비를 위해 중중이 직접 이 학규를 뽑아 유림에 게시한 것'에 감발되어 이 서원 규약의 보급·확산을 위해서 이 책을 간행하였다. 주해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논어』 등 경전과정이 등 선현의 글에서 관련 문장을 뽑아 집해의 방식으로 하였다. 주자의 이 서원 규약은 이황의 『성학십도』에 '白鹿洞規圖'로 수록되었고, 조선시대 서원 규약의 기본이 되었다.

『백록동규해』는 1518년 무렵의 활자본(규장각본)과 16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는 목판본(장서각본)이 전한다. 규장각본은 원문은 대자, 주해는 중자를 사용하였으며, 활자의 인면이 대체로 양호하여 1515년 갑인자의 보주 이후 가까운 시기에 찍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서각본은 흑구와 흑어미라는 판심으로 보아 16세기 간본으로 추정된다.

『주자대전』 간행 이전에도 주자의 문집에서 작품이 선별되어 책자로 간행·유통된 것은 주자에 대한 인식의 심화와 함께 중종의 즉위와 사림의 정계 진출 등과 관련지을 수 있다. 당시

사림은 불교를 배척하고 성리학을 이념으로 국왕을 보필하여 왕도정치를 실현하려는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였고, 그 방안을 주자의 문집에서 찾으려고 시도하였다.⁴⁾

『주자대전』이 반사된 이후 16세기에 편성된 선집서로는 김인후의 『朱子經筵講義(1549)』, 이황의 『주자서절요(1556)』, 기대승의 『朱子文錄(1557)』, 성혼의 『朱文旨訣(1571)』 등 4종이 있다. 이 가운데 『주자서절요』가 『주자대전』을 이해하는 기본 텍스트로 간행과 활용이 이어진 대표적인 선집서이고, 나머지 3종은 한두 차례 정도의 간행에 그쳤다.

『朱子經筵講義』는 김인후가 『주자대전』 권15에 있는 『經筵講義』를 뽑아서 간행한 것이다. 김인후는 세자(인종)의 스승인 인연으로 1543년 『주자대전』을 하사받았다. 『경연강의』는 주자가 영종에게 『대학』을 진강한 내용이었고, 김인후는 이 부분을 경연에서 진강하여 임금의 정치에 도움이 되고자 책자로 간행하였다. 간행 이후 전라감사 元混의 제안으로 전주부윤 宋純이 진덕수(宋)의 '大學講義'를 뽑아 '眞西山經筵講義'라는 제목으로 1559년에 합각하였다. 현재 전하는 책은 두 강의의 합각본이며, 17세기에 훈련도감자로 한 차례 더 간행되었다.

『주자서절요』는 이황이 『주자대전』에 수록된 서간문 2,361편 가운데 학문에 긴요하고 일상의 실천에 절실한 1,235편⁵⁾을 선정하고 『주자대전』의 편차에 따라 편집한 가장 대표적인 『주

4) 김안국은 『性理大全』에 수록된 주자의 작품인 『朱子增損呂氏鄉約』을 뽑아 언해를 붙여 간행하였다. 향약은 매월 동민이 모여 성리학의 실천 덕목을 읽으면서 선악에 따라 포상과 처벌을 하여 성리학적 가치관을 마을 단위까지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간행되고 중앙에서도 활자로 인쇄·배포되는 등 조선 전기 성리학적 향촌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5) 『주자서절요』에는 서간문 이외에 『속집』 권8에 수록된 『韋齋與祝公書跋』 1편이 선정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면 모두 1,236편이 된다.

자대전』 선집서이다. 이황은 개인의 사적인 내면의 감정까지 표현하는 문답식의 서간문이 주자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작품으로 보았다. 그래서 성리학 입문을 위한 기본 교재로 『주자서절요』를 만들어 강학 교재로 활용하였다. 편집 방식은 인물·시대배경·용어·오자 수정 등에 대한 주석, 주제의 동일성·시간 순차·공부와 혼계에 따라 여러 서신을 한 서신으로 묶는 조합, 필요 없는 부분을 생략하는 刪去, 필요한 부분을 가려 뽑는 選取, 온전하게 수록하는 保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강진석 2003, 77-78).

『주자서절요』는 성주목사 황준량(문인)이 임고서원의 목활자를 빌려 1561년에 15권으로 편찬된 『晦菴書節要』로 성주에서 처음 간행되었고, 이후 1565년 황해감사 유중영(문인)이 해주에서 활자로, 1566년 평양에서도 활자로 인출되었다. 그러나 활자 인출로 부수가 적어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황은 활자본 간행 이후에도 강학과 교정을 계속하였고, 편지 수신자 정보를 정리한 ‘諸子目錄’도 별도로 만들었다. 이에 정주목사 유중영이 이황의 완성본을 받아 1567년에 처음으로 대량 보급이 가능한 목판에 판각하였다. 판각 이후 이황의 권유에 따라 서명이 ‘晦菴書節要’에서 ‘朱子書節要’로 변경되면서 주자는 일반 유학자에서 후학이

스승으로 모시는 대학자로 격상되었다. 이 정주판을 보면, 권수제는 서명을 변경하였으나 관심제는 그대로 ‘회암서절요’로 남아 있다. 이황 사후에 정구가 기존의 15권에서 20권으로 편찬을 조정하고, 별책으로 편성되었던 ‘諸子目錄’을 각권의 앞에 배치하는 한편, 증보된 이황의 교정과 서문을 첨부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여 『주자서절요』를 1575년에 성주의 천곡서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최채기 2012, 187-190). 이 천곡서원판은 이후 『주자서절요』의 기준이 되어 1578년 錦城精舍에서,⁶⁾ 1584년 나주에서 김성일이, 1611년 전주에서 정경세가, 1743년 도산서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정조연간에 임진자로, 1904년에는 도산서원에서 목판본으로 재차 간행되는 등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간행이 이어졌다. 또한 문인 이덕홍의 필사본 『朱子書節要講錄』·『朱子書節要記疑』, 이재의 『朱子書節要講錄(1713)』, 정중기의 『朱子書節要集解(1748)』 등 『주자서절요』를 학습하기 위한 서적의 편성과 간행도 이어지면서 조선에서 『주자서절요』는 주자를 이해·학습하기 위한 기본서로 활용되었다.

『朱子文錄』은 기대승이 『주자대전』 수록 작품 가운데 正集에서 147편을 선정한 것이다.⁷⁾ 기대승이 3권으로 원집을 편성하였고, 송정황

6) 이 판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판본으로 권말에 ‘萬曆戊寅秋錦城精舍刊’이란 간기가 있어 錦城, 즉 나주 간본으로 추정하여 1584년 김성일이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연도에 차이가 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錦城精舍를 나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7) 147편 이외에 『朱子行狀』, 『論韓文公與孟簡尙書』, 『不自棄文』 등 『주자대전』 미수록 작품 3편이 더 있다. 황간(송)이 지은 『朱子行狀』은 1566년 이전에 양산에서 간행된 『太師徽國文公年譜』에 수록되어 있어 참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論韓文公與孟簡尙書』는 韓愈의 『與孟簡尙書』(『古文眞寶』 수록)에 대하여 논한 글로 출처를 알 수 없다. 『不自棄文』은 1771년 흥계회판 『주자대전』의 遺集에 수록되어 있으나 1567년 무렵 전주에서 간행된 주자의 또 다른 문집인 『紫陽文集』에 수록되었다가 유희춘 등이 주자의 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삭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기존 목판에서 삭거되었는데, 삭거 전후의 『자양문집』이 함께 전하고 있다.

등 문인들이 여기에 속편 1권을 더하였으며, 1557년 나주목사 김윤제가 목활자로 인쇄하였다. 선정된 작품은 書와 記 각 30편, 序 22편, 雜著 17편, 封事·奏筭 10편, 跋 8편, 銘 6편 등 詩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유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자대전』의 편차를 따르거나 유목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순서가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주자대전』에 있는 주석도 題目註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략하였고, 본문은 대체로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 『朱子文錄』은 한차례 소량의 목활자 인쇄로 한정적으로 보급되면서 활용되지 못한 채 전란 속에 사라져 현재 일본 내각문고에 유일하게 1종이 전한다.

『朱文旨訣』은 성혼이 『주자대전』에서 초학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작품 26편을 선별하여 엮은 단권의 책이다. 성혼은 1571년 牛溪書室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주자대전』에서 글을 뽑아 ‘爲學之方’이란 서당 교재를 만들어 주자학 입문서로 사용하였다. 당시는 필사본으로 유통되었고, 1657년에 문인 안방준이 보성에서 ‘爲學之方’이란 서명으로 비로소 간행하였다. 이에 성혼의 외손자인 윤선거가 제목을 ‘朱門旨訣’로 改刻하자고 건의하였고,⁸⁾ 1666년 송시열이 ‘朱門旨訣跋’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1685년 무렵 박세체가 『三先生遺書』⁹⁾를 간행할 때, 성혼의 이 책도 포함되어 초학자용 기본도서가 되었으나 해당 제목은 그대로 ‘爲學之方’으로 사용되었다.¹⁰⁾ ‘朱門旨訣’이라는

제목으로는 1923년 보성의 죽곡정사에서 비로소 간행되었으며, 책판이 전한다.

『朱文旨訣』에서 선정된 26편은 書 22편, 雜著 3편, 奏筭 1편이며, 모두 독서와 학문의 방법, 자세 등 초학자를 위한 내용이다. 편집 방식은 작품 전체를 수록하기도 하였으나 필요한 내용만 선별, 발췌하기도 하였다. 『주자대전』의 편차를 따르지 않고, 주자가 공부를 하러 떠나는 아들에게 ‘스승을 부모와 같이 대하고, 의문나는 것은 물어서 해결하고, 술을 멀리 하라’는 가르침을 담은 『與長子授之』라는 續集에 수록된 편지로 시작하여, 근본을 잊고 딴 곳에서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騎驢覓驢의 고사를 담은 或人에게 보내는 편지로 마무리하는 등 편집자의 주관으로 재구성하였다. 『朱文旨訣』은 서당 교재로 사용된 주자학 입문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황과 이이의 초학서와 함께 『三先生遺書』에 수록된 만큼 조선 후기 성리학 입문서로 활용되었다.

『주자대전』 보급 이후 이황 등 학자들은 방대한 분량과 제한된 보급으로 접근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자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뽑아 선집서를 만들어 강학에 활용하였고, 간행·보급을 통하여 『주자대전』 이해와 수용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16세기는 조선 성리학의 태동기로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이황 등의 학자를 중심으로 문인 그룹을 형성하고 스승의 학문을 계승해 나가는 가운데 『주자대전』 연구와 이해라는 학문의 방

8) 『魯西先生遺稿』卷11, 『與宋明甫』

9) 안변부사 심수량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서적을 간행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박세체가 편성한 책으로 李滉의 『聖學十道』, 成渾의 『爲學之方』, 李珣의 『擊蒙要訣』로 구성되어 있다.

10) 이 책은 판목이 훼손되어 1899년 안변진학회에서 안병옥 등의 중간으로 이어졌다(重刊跋).

향이 설정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2 조선 후기 선집서

17세기 이후에도 선집을 통한 『주자대전』의 핵심 작품 보급의 노력은 계속되어 정경세의 『朱文酌海(1622)』, 조익의 『朱書要類(1642)』, 편자 미상의 『朱子封事(17세기)』, 송시열의 『節酌通編』·『節酌通編補遺』(1683)와 『朱文抄選(1683)』, 이상정의 『敬齋箴集說(1750)』, 정조의 『朱書百選(1794)』 등의 편성과 간행으로 이어졌다.

『주문작해』는 유성룡의 문인인 정경세가 1622년에 편성한 선집서이다. 정경세는 『주자서절요』를 보완하는 방편으로 『주자대전』에서 서간문 이외의 작품을 선정하고, 『주자서절요』에서 선정되지 않은 서간문을 뽑아 16권 8책으로 편성하였다. 정경세는 시(권1-10)와 강의(권15)를 제외하고는 전체에 걸친 고른 선정을 하였으며, 선정 작품 수는 서간문 119편을 포함하여 모두 329편이다.¹¹⁾ 정경세는 단순한 선정에 그치지 않고 『주자서절요』와 같이 선별·초락·주석의 방식으로 편집하였으며, 대체로 『주자대전』의 편차를 따랐다.¹²⁾

『주문작해』의 간행은 문인 申楫이 시도하였

다. 신楫은 1636년에 沈演이 경상감사로 부임하자 정경세의 본가에 있던 수택본을 보내어 간행을 요청하였으나 병자호란의 발발로 무산되었다.¹³⁾ 이후 1648년에 경상감사 李曼의 의하여 비로소 간행이 이루어졌으며, 정경세의 사위인 송준길이 세상에 유통된 지 여러 해 지났으나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저자를 밝히고, 책의 편찬 배경을 설명한 발문(1653)을 추각하였다.¹⁴⁾ 이후 1907년 후손 정철우 등이 정경세를 배향한 상주 우산서원에서 중간하였다.

『주서요류』는 조익이 『주자서절요』에서 작품을 선별하여 편집한 선집서이다. 조익은 주자를 공맹의 道를 계승한 인물로 보았고, 『주자서절요』가 『주자대전』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이지만 이 또한 분량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더욱 핵심적인 것을 뽑아 『근사록』의 체제를 기준으로 주제별로 분류하여 1642년에 편성한 후, 편차를 재조정하여 1652년에 12권으로 완성하였다. 조익은 여러 편을 한 편으로 합치거나 한편을 여러 편으로 나누는 등 주제에 따라 나누고 합치는 방식으로 편집을 하였다. 그래서 『주자대전』 서간문 665편이 『주서요류』에서는 690편으로 편성되어 있어 편수에 차이가 있다.¹⁵⁾ 조익이 주석을 추가한 것은 없고,

11) 『주문작해』 권7-8에 『朱子大全』의 서간문 119편(93題)이 수록되어 있는데, 『주자서절요』와 동일한 서간문에서 선정한 것이 30편이다. 그러나 이 30편 가운데 1편만 동일 부분을 인용하였고, 29편은 동일 서간문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동일한 1편은 陳淳의 ‘心說’에 대한 답신인 ‘答陳安卿’(『朱子大全』 권57)이다. 『주자서절요』에서는 4장에 걸친 장문의 물음을 생략하고 ‘問心說’이라 축약하면서 ‘性理大全에 보이고 문장이 많아서 수록하지 않는다(見性理大全文多不錄於此)’라는 이항의 설명을 있고, 4행(68자)의 답변만 수록하였으나 『주문작해』에서는 진순의 물음까지 함께 수록하였다.

12) 『속집』, 『별집』에서는 서간문만 선정하는데, 그것을 『정집』의 서간문 뒤에 붙인 것과 권77의 『建寧府崇安縣五夫社倉記』 다음에 社倉과 관련되는 『社倉事目』(권99)을 넣고 ‘今移附’라는 설명을 첨가한 것을 제외하면 편차를 따르고 있다.

13) 『河陰先生文集』 卷5, 『與沈方伯 演○丙子』

14) 『朱文酌海』, 『朱文酌海跋』(송준길, 1653), 『朱文酌海跋』(정철우, 1907)

『주자서절요』의 주석은 대체로 생략하고 14곳에서만 이황의 주석을 수용하였다. 이 책은 바로 간행되지는 못하였고, 1745년 교리 신위의 개간 요청을 영조가 윤허하여 嶺營에서 개간되었다.¹⁶⁾

『주자봉사』는 『주자대전』의 권11에서 권14까지 수록된 주자의 봉사 35편을 그대로 간행한 것이다. 무신자본 『고사촬요(1674)』의 ‘書冊印紙數’에 서명이 등장하며, 『完營冊板目錄[1759]』에는 전주에 책판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17세기 목판본 간행이 전주에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존본이 확인되지 않는다. 전존본은 무신자본이 확인되는데, 이는 1728년 영조의 진강 책자 결정에 따라 인출된 기록이 있어 그때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節酌通編』·『節酌通編補遺』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인 송시열이 편성한 『주자대전』 선집서이다. 송시열은 앞서 간행된 『주자서절요』 20권과 『주문작해』 16권을 합하여 36권의 『절작통편』을 편성하고, 여기에 누락된 작품을 선별하여 『절작통편보유』 7권을 추가하였다. 송시열은 ‘『주자대전』을 볼 때 바다를 보는 것처럼 아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두 책을 보면 요약이 되어 있어 박람에 이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¹⁷⁾ 이에 『주자대전』 전체

에 대한 주석서인 『주자대전차의』를 마무리하고, 『절작통편』에 『주자대전차의』의 주석을 넣어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주자대전』 학습서를 종합하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분량이 많아지고, 『절작통편』에 수록되지 않은 『주자대전차의』의 내용들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어 『주자대전차의』와 『절작통편』·『절작통편보유』는 분리되었다(강문식 2008, 85-86). 『절작통편』은 1686년 김수흥의 간행 건의를 시작으로, 1702년 이만성, 1703년 김진규가 재차 진강 교재로 사용할 것을 건의하여 1704년에 嶺營에서 간행되었다.¹⁸⁾

『절작통편』은 『주자서절요』와 『주문작해』를 합친 것이고, 『절작통편보유』는 봉사·주차류나 서간문에서는 선정하지 않고 『절작통편』에서 누락된 작품 150편¹⁹⁾을 선정하여 외형적으로 거의 모든 類目이 선정되었다. 그 결과 송시열의 『절작통편』·『절작통편보유』에는 『주자대전』의 작품 1,684편에서 선정되어 조선 후기 『주자대전』을 종합한 선집서로 평가된다. 『절작통편』은 숙종부터 정조까지 국왕의 진강 교재로 이용되면서 그 가치를 평가받았고, 당시 학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조선 후기 주자학 연구 성과를 대표하는 저술로 위상을 인정받게 되었다(강문식 2008, 93).

15) 『주자서절요』와 비교해 보면 『주자서절요』에서 27편이었던 편수가 『주서요류』에서는 52편이 되어 25편이 증가하였다. 2편을 하나로 합친 것도 있으나 많게는 5개까지 나누어진 것도 있기 때문이다. 또 1편의 편지는 『朱書要類』에 중복해서 두 차례 수록되기도 하였다. 이는 하나의 편지에 여러 주제가 있어 주제에 따라 나누거나 복수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6) 『承政院日記』, 영조 21년 4월 5일.

17) 『宋子大全』 권139 『朱子大全筭疑序』

18) 전존본을 보면 권20의 권말제면, 권21의 목록제면에 “虎溪院藏”이라는 장서인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판이 발견된다.(계명대본) 이는 1704년 嶺營에서 간행된 이후 책판의 마모에 따라 보각 또는 중간이 이루어졌고, 호계서원본이 번각의 저본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19) 『주자대전』 권99에 수록된 『社倉事目』 1편은 『절작통편보유』에도 수록되어 중복된다.

『주문초선』은 송시열이 숙종의 승인을 받아 경연 진강 교재 용도로 편성한 책이다. 송시열은 『절작통편』에서 작품을 선정하고 4권 2책으로 편성하여 올렸다. 『주자서절요』에서 22편, 『주문작해』에서 15편 등 37편이 선정되었으며, 서간문 22편, 봉사·차차 11편, 잡저 1편, 서문 3편이다. 편집 방식은 선별하는 방식도 일부 취하고 있으나 대부분 『절작통편』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기존 주석은 생략하고 작품 말미에 별도의 주석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송시열이 해당 작품에 대하여 논평한 것이며, 서간문에 16개, 『壬午應詔封事』에 1개 등 모두 17개이다(강문식 2013, 287). 이 『주문초선』은 국왕 진강 교재로 송시열이 엄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송시열이 주자의 글을 빌어 국왕에게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로 임금에 갖추어야 할 덕목, 학문의 중요성, 인재 등용, 인물 평가 등 국왕이 알아야 할 정치적 조언들이다. 『주문초선』의 간행은 1718년 민진후가 진강을 위해 인출할 것을 건의하여 간행·반사된 무신자본이 있으며, 정조연간에 인출된 정유자본도 전한다. 『주문초선』은 이후 1795년 정조의 명으로 편성된 『兩賢傳心錄』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경재잡집설』은 이상정이 『주자대전』 권85에 수록된 『경재잡』을 뽑아 이를 해설한 책으로 1750년 서문을 지어 완성하였다. 1778년 무렵 편성된 『각도책판목록』을 보면 경상감영에 책판이 있어 완성 후 바로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朱書百選』은 정조가 1794년에 『주자대전』 수록 서간문을 엄선하여 6권 3책으로 편성한 책이다. 정조는 주자를 스승으로 삼아 평생 주자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편의 선집서를 편성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간행·보급하기도 하였다. 정조는 당시 사람들이 성리서를 읽지 않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 권질을 줄여서 배우는 사람들이 전력으로 공부하게 하고자 『주서백선』을 간행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權輿로 삼고자 하였다(송희준 2014, 275-276). 그런 목적에 따라 1794년 12월에 정유자로 인출하여 신하들에게 반사하였으며, 영남·호남·관서의 감영에 번각을 명하였다. 정조는 팔도와 사도의 향교에 각 1권을 반사하여 우리나라 선비라는 사람은 모두 이 책을 보도록 하였다.²⁰⁾ 그런 만큼 1794년부터 여러 차례 과시 합격자에게 상급으로 주어졌으며, 1797년 초계문신의 과강에 『주서백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²¹⁾ 『주서백선』이 과시 상급으로 주어진 것은 1872년까지 기록을 보인다.

『주서백선』에는 『주자대전』의 서간문 104편이 수록되어 있다. 정조는 이황의 『주자서절요』를 보고 선별하면서 필요에 따라 재편집을 하였다. 우선, 주자가 스승 이동에게 보낸 편지인 ‘與延平李先生書’를 ‘上延平李先生’으로 변경하였다. 높임의 의미를 담은 ‘上’이란 글자를 사용하여 주자의 스승을 높였다. 정조는 ‘延平’에게 올린 편지를 맨 앞에 둔 것은 師承 관계를 밝힌 것이고, 直卿(황간)에게 보낸 편지로 글을 맺은 것은 학문의 전수를 보인 것이다.²²⁾ 고

20) 李晩秀, 『履園遺稿』 권6 『頒降朱書百選雅誦于八道校宮關文』
 21) 『日省錄』 正祖 21年(1797) 10月 20日(乙卯)
 22) 『弘齋全書』 卷180, 群書標記 2, 御定 2, 『朱書百選』 6권(1794)

하여 주자의 도학 연원을 밝히면서 스승을 높이고 있다. 두주를 사용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본문을 그대로 수록하지 않고 생략을 통해 축약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다. 『주자서절요』에서 생략되었던 『주자대전』의 원문이 『주서백선』에서는 수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정조가 『주서백선』을 편성하면서 『주자서절요』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자대전』 원본을 함께 보면서 보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편차 순서는 『주자대전』을 대체로 따르면서 편지 수신자별로 모으는 방식을 취하여 수신자의 편지가 앞에 있으면, 일부 편지는 앞으로 이동되기도 하였다. 『주서백선』은 1794년 정유자로 인출·반사된 이후, 정조의 명에 따라 1795년에 영영·완영·기영에서, 1800년에 내각에서 번각되었으며, 1800년 나주에 살던 주자의 후손들이 번각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주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16세기에 6종, 17세기에 4종, 18세기에 3종 등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주자대전』 수록 작품을 선별한 선집서 13종이 간행되었다. 16세기에 『주자대전』을 수용 보급하려는 노력이 가장 활발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주자서절요』를 중심으로 이를 보완하거나 『주자서절요』에서 선집하는 방식으로 선집서의 간행이 이루어졌다. 선집서 간행과 보급을 통하여 『주자대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자대전』 선집서는 주자 사상의 보급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작품을 선별하

여 책자로 보급하는 단계를 넘어 작품에 나오는 단어나 구절에 대해 주석하는 단계로도 나아가는 밑바탕이 되었다.²³⁾

4. 『주자대전』 선집서 구성의 양상

4.1 선집서 편성의 특징

1518년 무렵부터 편성되기 시작된 『주자대전』 선집서는 1794년까지 280여 년 동안 13종이 편성, 간행되었다. 선집서 편성의 양상은 편찬 목적, 편집 방식, 선정 작품의 종류, 다른 선집서와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상호 비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표 2〉 참조).

우선, 편찬 목적은 크게 국왕 교육과 강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자대전』을 보고 학자의 관점에서 이해·학습을 목적으로 편성한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 그 가운데 국왕의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도 있다. 국왕 교육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은 조선 전기에는 『주자봉사초략』과 『주자경연강의』가 있고, 후기에는 『주자봉사』를 비롯하여 송시열이 편성한 『주문초선』과 『절작통편』이 있다. 나머지는 8종은 모두 강학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정조의 『주서백선』은 국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반드시 읽게 하고자 전국적으로 보급한 권장 도서였다. 선집서의 공통된 목적은 주자의 사상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

23) 송시열을 중심으로 김창협, 권상하 등 문인들이 『朱子大全』 주석서인 『朱子大全筭疑』를 편성·간행(무신자본)하였으며, 김창협은 그 과정에서 묻고 답한 내용을 정리한 『朱子大全筭疑問目』(필사본)을 남겼다. 이후 이를 보완하여 이의철의 『朱子大全筭疑後語[1762]』(필사본), 김민재의 『朱子大全筭疑補[1809]』(필사본), 김매순이 『朱子大全筭疑問目標補[1812]』(전사자본), 구한말 이항로의 『朱子大全筭疑輯補』(필사본)의 편성으로 이어졌다.

〈표 2〉 선집서 편성의 양상

* 편성 연도순

서명(편성연도)	선정편수	목적	편집 방식	작품 구분	관련 도서
朱子封事抄略(1518)	15	국왕 진상	선별	봉사	주자 문집
白鹿洞規解(1518)	1	서원 교육	선별, 주석	잡저	주자 문집
朱子經筵講義(1549)	1	국왕 진상	선별	강의	주자대전
朱子書節要(1556)	1,236	강학	선별, 초절, 주석	서간+발문 1편	주자대전
朱子文錄(1557)	145	강학	선별, 초절	종합	주자대전
朱門旨訣(1571)	26	서당 교육	선별, 초절	서간, 주차, 잡저	주자대전
朱文酌海(1622)	329	강학	선별, 초절, 주석	종합	주자대전
朱書要類(1642)	665	강학	선별, 초절	서간	주자서절요
朱子封事(17세기)	35	경연 진강	선별	봉사	주자대전
節酌通編·補遺(1683)	1,684	경연 진강	선별	종합	주자서절요, 주문작해, 주자대전
朱文抄選(1683)	37	경연 진강	선별, 주석	서간, 봉사, 잡저, 서문	절작통편
敬齋箴集說(1750)	1	강학	선별, 주석	잡저	주자대전
朱書百選(1794)	104	독서 권장	선별, 초절, 주석	서간	절작통편(주자서절요), 주자대전

면서 너와 내가 합의하는 사상적 공통분모를 공유·확인해 나가는 것이었다.

작품의 편집 방식은 발췌·조합·생략·압축 등의 초절 방식을 기본으로 여기에 어려운 구절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주석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초절의 경우는 하나의 작품에서 한 차례 이루어지는 단편적인 경우도 있지만, 『주자서절요』·『주문작해』·『주서요류』와 같이 여러 부분을 뽑아 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편차의 구성은 대체로 『주자대전』을 따르고 있으나 『주서요류』의 경우처럼 편집자가 정한 주제에 맞게 재구성한 것도 있고, 『주자문록』의 경우처럼 기준 제시 없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선정된 작품의 유형은 서간문이 중심을 이루며, 상소문에 해당하는 주차·봉사가 다수 선정되었다. 서문·잡저를 위주로 선정된 기타 작품들은 기존의 서간문과 상소문 선집서를 보완하

는 차원에서 선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주자대전』 전체에 대한 균형적인 소개를 하려는 현상을 보인다. 1편의 작품을 선정한 것은 『백록동규해』, 『주자경연강의』, 『경재잡집설』 등 3종이 있고, 그 외에는 복수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한 가지 유목에서 작품을 선정한 것으로는 상소문을 대상으로 한 『주자봉사초략』과 『주자봉사』, 서간문을 대상으로 한 『주자서절요』, 『주서요류』, 『주서백선』이 있고, 나머지 5종은 전체 유목에서 작품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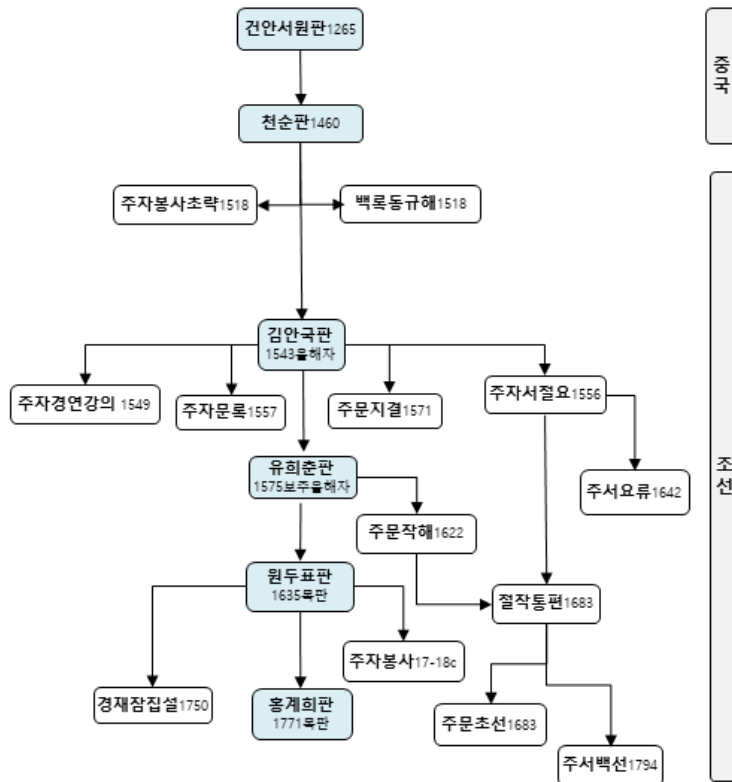
선집서의 작품 선정은 『주자대전』에서 직접 선정하기도 하였으나, 후기로 가면서 『주자서절요』와 같은 기존 선집서에서 선정하거나 기존 선집서를 기준으로 선정되지 않는 작품을 선정하는 등 선집서 상호간의 보완 연결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황의 『주자서절요』가 보급·학습되면서 정경세는 『주자서절요』에 포함되지 못한 작품을 『주자대전』에서 선별

하여 『주문작해』로 보완하였다. 『주자대전』 선집서를 종합한다는 포부를 가졌던 송시열은 『주자서절요』와 『주문작해』를 합쳐 『절작통편』을 만들었고, 여기에 누락된 작품을 보완하여 『절작통편보유』를 편성하였으며, 숙종의 경연을 위해 『절작통편』에서 내용을 뽑고 자신의 견해를 붙여 『주문초선』을 편성하였다. 조익은 『주자서절요』를 보고 『주서요류』를 편성하였고, 정조도 『주사서절요』를 보고 『주서백선』을 편찬하였다. 상호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선집서도 있었으나 이처럼 『주자서절요』를 중심으로 상호 관계를 가지면서 편찬·간행이 이어졌다. 선집서 13종의 계통도는 <그림 1>과 같다.

4.2 유목별 선정 양상

『주자대전』에 수록된 작품은 크게 상소문, 서간문, 기타 작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소문은 주자가 국왕·지방관에게 올린 글이나 강의를 수록하고 있는 작품으로 14권(권11-23)이고, 서간문은 주자가 지구·문인과 관원 등에게 보낸 편지로 가장 많은 58권(권24-64, 속집 권1-11, 별집 권1-6)이며, 기타 작품은 상소문과 서간문을 제외한 작품들로 40권(권65-100, 별집 권7-10)이다.

『주자대전』 수록 작품은 상소문 306편, 서간문 2,361편, 기타 작품 978편 등 모두 3,645편이



<그림 1> 『주자대전』 선집서의 계통도

다. 조사된 선집서 13종에서는 이 가운데 상소문 89편, 서간문 1,325편, 기타 작품 320편 등 모두 1,734편이 선정되었으며, 선정 편수의 현황은 <표 3>과 같다(최경훈 2018, 146-147).

<표 3> 『주자대전』 유목별 선정 편수²⁴⁾

구분	권차	분류	주자대전	선집서(13종)		
			편수	선정 편수	비율(%)	누적 편수
상소문	11-12	封事	6	6	100	28
	13-14	奏筭	29	29	100	87
	15	講義·議狀·筭子	6	6	100	12
	16-19	奏狀	65	17	26.2	34
	20-21	申請	55	5	9.1	10
	22-23	辭免	145	26	17.9	52
소계			306	89	29.1	223
서간문	24-64	書	1,710	1,066	62.3	2,883
	속1-11	書	466	177	38	426
	별1-6	書	185	82	44.3	212
소계			2,361	1,325	56.1	3,521
기타 작품	65-74	雜著	108	35	32.4	70
	75-76	序	69	35	50.7	64
	77-80	記	81	47	58	89
	81-84	跋	281	77	27.4	120
	85	銘(22), 箴(2), 贊(9), 表(13), 疏(4), 啓(14), 婚書(3), 上梁文(1)	68	38	55.9	57
	86	祝文	69	7	10.1	8
	87	祭文	42	13	31	25
	88-89	碑	10	9	90	16
	90	墓表	12	7	58.3	14
	91-94	墓誌銘	53	20	37.7	29
	95-98	行狀	16	8	50	17
	99-100	公移	41	19	46.3	20
	속8	跋	4	1	25	2
	별7	記(2), 祝文(2), 祭文(2), 題跋(18)	24	0	0	0
	별8	雜著(1), 陳請(1), 啓(4)	6	0	0	0
별9-10	公移	94	4	4.3	4	
소계			978	320	32.7	535
합계			3,645	1,734	47.6	4,279

24) 선정 편수는 『주자대전』에서 조사 대상 선집서 13종에 한 번이라도 등재되었음을, 누적 편수는 해당 권차 범주의 수록 작품이 13종 전체에 몇 차례 등재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주자대전』 전체 작품이 조선시대 간행 선집서 13종에 등재되는 현상을 전체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4.2.1 상소문

상소문은 주자가 국왕 등에게 올리기 위하여 지은 작품들이며, 封事·奏筭·講義議狀筭子·奏狀·申請·辭免 등 6개의 類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306편 가운데 『주자봉사초략』을 시작으로 『주자봉사』까지 모두 8종의 선집서에서 89편(29.1%)이 선정되었다.

상소문 가운데 국왕에게 올린 封事·奏筭(권11-14)는 주자의 정치·외교관과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왕에게 직접 올린 정책들을 담고 있으므로 35편 전체가 선정되어 선정률이 높다. 1518년의 『주자봉사초략』에 15편이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1557년의 『주자문록』에 10편, 1571년의 『주문지결』에 1편, 1622년의 『주문작해』에 22편, 1683년 『절작통편』에 『주문작해』가 그대로 22편, 1683년 『주문초선』에 10편이 선정되었고, 35편을 그대로 뽑아 『주자봉사』로 간행되기도 하는 등 여러 선집서에 수록되고 있어 누적 선정수도 높다. 그러나 봉사·주차 이외의 상소문 작품 271편은 1549년 『주자경연강의』에 1편이 선정된 이후, 정경세의 『주문작해』에서 53편이 선정되고 그대로

『절작통편』에 반영된 것, 『절작통편』에서 뽑은 『주문초선』 1편 이외에는 선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선정률(20%)이 낮다.

상소문 작품의 선정 빈도는 1회부터 7회까지 분포하며, 모두 封事·奏筭이다. 그 가운데 6회 이상 선정된 상소문은 조선 학자 다수가 주자의 글을 빌어 국왕에게 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내용은 <표 4>와 같다.

가장 많이 선정된 상소문은 『주자대전』 권14의 7번째 작품인 『甲寅行宮便殿奏筭』의 제2편으로 7개의 선집서에서 선정되었다.²⁵⁾ 『甲寅行宮便殿奏筭』는 광종의 퇴위로 비정상적으로 즉위한 영종에게 주자가 1194년에 올린 글이다. 모두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제2편은 暗誦·詞章 위주가 아닌 경학 위주의 관리 선발과 학문과 독서의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1,344자의 비교적 짧은 글이다. 이 글에서는 '학문을 하는 방법으로 이치를 탐구하는 것[窮理]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고, 이치를 탐구하는 요체는 독서이다. 독서는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읽는 것이며, 자세하게 읽는 근본은 공경함을 유지하고[居敬] 의지를 다

<표 4> 선정 빈도 상위 주요 상소문

권차	제목	수신	연도	나이	횟수	주제
권14-7	行宮便殿奏筭二	영종	1194	65	7	경학 위주의 관리 선발, 학문과 독서의 방법
권12-1	己酉擬上封事	광종	1189	60	6	군주가 시행해야 할 정치적 조언 10가지
권13-1	癸未垂拱奏筭一	효종	1163	33	6	군주가 갖추어야 할 덕목, 大學의 道
권13-2	垂拱奏筭二	효종	1163	33	6	금과의 외교 방법으로 주전론 강조
권13-3	垂拱奏筭三	효종	1163	33	6	내치를 위한 4가지 급선무
권11-4	戊申封事	효종	1188	59	6	군주의 마음, 6가지 급선무, 중원 회복, 불교 비판
권14-5	延和奏筭五	효종	1188	59	6	효종의 통치 27년 비판

25) 『주자서절요』 등 서간문을 대상으로 한 선집서 3종과 『주자경연강의』 등 1편을 선정 한 선집서 3종을 제외하면 모든 선집서에 선정된 셈이다.

잡는 것[持志]에 있다.’는 학문과 독서의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1편의 상소문이 선정된 『주문지결』에 선정되어 7개의 선집서에 선정되었다. 6회 선정된 상소문들도 대체로 군주의 자세, 시급히 행해야 할 정책, 금과의 외교 방법으로 주전문 강조, 군주의 실정 비판 등 군주의 자세와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4.2.2 서간문

『주자대전』에는 2,361편의 서간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이황의 『주자서절요』를 시작으로 정조의 『주서백선』까지 8종의 선집서에 1,325편(56.1%)이 선정되었다.²⁶⁾ 서간문의 선정은 서간문 첫 선집서인 『주자서절요』가 중심에 있다. 『주자서절요』는 『주자대전』의 서간문 2,361편 가운데 1,235편(52.3%)의 서간문이 선정되었다. 이황이 문인·학자들과 강학과 교류를 하면서 함께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폭넓은 학습과 공유를 바탕으로 하였고, 『주자서절요』 편성 후 문인을 중심으로 30년 사이에 8회(목활자본 3회, 목판본 5회)가 간행되는 등 폭넓은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주자대전』을 이해하는 기본 서적으로 확산되었다. 『주자서절요』 학습이 확산되면서 이덕홍의 『朱子書節要講錄』·『朱子書節要記疑』 등 문답을 정리한 주석서의 편찬도 이어지는 등 16세기 후반 방대한 『주자대전』을 학습하기 위한 기본 교재로 『주자서절요』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주자서절요』 이후에 서간문을 선집한 선집서는, 비슷한 시기에 편성된 『주자문록』과

『주문지결』을 제외하면, 5종 모두 『주자서절요』와 관련이 있다. 『주자서절요』와 중복을 피하여 보완하는 차원에서 편성되거나 『주자서절요』를 보고 선집서를 만들었던 것이다.

서간문의 선정 빈도는 6회부터 1회까지 분포한다. 선정 빈도가 높다는 것은 조선 학자들의 수용 의지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5회 이상 선정된 주요 서간문은 <표 5>와 같다(최경훈 2018, 179).

선정된 주요 편지 32편은 학문과 독서의 방법(6편), 中和·太極 등의 철학(5편), 역사 인물 평가 기준(4편), 봉당론(3편), 主戰이라는 金과의 관계 설정(3편), 불교와 이단 비판(3편), 신하의 의무(3편), 인재 등용의 방법(2편) 등이다. 이 가운데 학문과 독서의 방법은 문인에게 보낸 편지가 많고, 관원에게 보낸 편지는 봉당 옹호, 신하의 역할, 金과의 강화 반대 등이며, 지구에게 보낸 편지는 역사 인물 평가, 저술에 대한 문답, 中和·太極 등 철학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수신자와 주제에 따라서는 관원에게 보낸 시사에 관한 내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주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주의에 바탕을 두면서 금나라에 대하여 일관된 주전문을 펼치며 내치와 외교 정책, 인재 등용, 신하의 역할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론 활동을 전개하여 현실을 개혁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 학자들은 주자의 서간문을 통하여 스승이나 유학자의 모습보다는 정치가로서의 주자를 소환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편지를 더욱 선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6) 『주자서절요』에서 1,235편이 선정된 이후 새로운 서간문이 선정된 것은 『주자문록』에서 2편이 추가되고, 『주문자해』에서 『주자서절요』·『주자문록』과 중복되지 않는 88편이 선정되어, 결과적으로 조선에서 간행된 선집서에는 『주자대전』 서간문 1,325편이 선정되었다.

〈표 5〉 주요 서간문(5회 이상 선정)

* 수신자 성명순

연번	권차	제목	선정 횟수	수신자	편수(수신자) ²⁷⁾		관계	내용
					전체	선정		
1	권60-46	答潘子善05	5	潘時舉	11	5	문인	공부의 방법
2	권58-34	答宋容之	5	宋之汪	1	1	문인	독서법, 『大學』
3	권45-17	答楊子直01	5	楊方	6	6	문인	太極·持敬 설명
4	권35-07	答呂伯恭論淵源錄	5	呂祖謙	107	58	지구	『伊洛淵源錄』 문답
5	권37-09	與王龜齡	5	王十朋	1	1	지구	인물 칭송(왕십봉)
6	권30-03	答汪尙書3	6	汪應辰	16	13	관원	불교 비판, 金 관계
7	권30-05	答汪尙書5	5					소식 비판
8	권26-41	上宰相書	5	王淮	6	2	관원	구황 대책
9	권37-22	答尤延之	5	尤袤	12	2	관원	역사 인물 평가
10	권39-55	與魏應仲	5	魏應仲	1	1	문인	공부 방법과 태도
11	권37-14	與劉共父4	5	劉珙	11	8	지구	인재 등용 중요성
12	별01-02	劉共甫	5					신하의 역할
13	권28-21	與留丞相書	6	留正	19	8	관원	붕당옹호, 군자와 소인 구분
14	권28-22	與留丞相書	5					
15	권28-24	與留丞相書	5					
16	권35-13	答劉子澄5	6	劉清之	20	18	지구	인물평(순욱)
17	권36-10	答陸子靜4	5	陸九淵	6	4	지구	無極·太極
18	권49-19	答林伯和	5	林廩	1	1	문인	공부 방법
19	권25-01	答張敬夫書	6	張栻	54	34	지구	기청사 파견 반대
20	권32-18	答張欽夫2	5					中和 新說
21	권37-18	答鄭景望	5	鄭伯熊	4	1	지구	龔茂良 견해 비판
22	권41-11	答程允夫03	5	程洵	22	15	문인	소씨 학문 비판
23	권29-04	與趙尙書書	5	趙汝愚	15	6	관원	신하의 역할
24	권36-19	答陳同甫6	5	陳亮	16	14	지구	역사 인물 평가(동기, 義理)
25	권36-20	答陳同甫7	6					
26	권58-37	答陳器之02	6	陳埴	2	2	문인	四端
27	권24-10	與陳侍郎書	5	陳俊卿	17	7	관원	강화 반대
28	권37-10	與陳丞相	6					인재 판단 기준
29	별03-14	彭子壽	5	彭龜年	5	4	문인	수양 공부 필요성
30	권64-55	與湖南諸公論中和第一書	5	湖南諸公	1	1	지구	中和에 대한 견해
31	권64-65	答或人10	5	或人	13	8	지구	학문의 대상, 자세
32	권26-06	與臺端書	5	黃洽	1	1	관원	조정 소인배 제거

4.2.3 기타 작품

『주자대전』의 기타 작품은 974편이며, 그 가운데 8개의 선집서에서 318편이 선정되었다. 1518

년 『백록동규해』에 잡저 1편이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주자문록』에서 記(30편)와 序(22편)를 포함한 105편, 『주문지결』에서 雜著 3편, 『주문

27) 수신자 기준으로 전체는 『주자대전』 수록 편수, 선정은 그 가운데 조선 간행 선집서에서 선정된 편수를 나타낸다.

작해』에서 雜著(21편)·序(15편)·記(23편)·跋(36편)을 포함한 135편이 선정되었다. 여기까지는 속집, 별집을 제외한 정집에서만 선정되었다. 이후 송시열이 『주문작해』에서 누락된 작품 150편을 선정한 『절작통편보유』가 모두 기타 작품 범주에서 선정되었는데, 정집 이외에 별집에 수록된 公移도 포함되었다. 이후 『주문초선』에서 4편, 『경제잡집설』에서 1편이 선정되었다.

기타 작품은 선정 빈도가 높지 않다. 1회 선정된 것이 157편(49.4%), 2회 선정이 111편(34.9%), 3회 선정이 46편(14.5%)이며, 가장 많은 4회 선정이 4편(1.3%)이다.

4회 선정된 작품을 보면, 「戊午讜議序」, 「王梅溪文集序」, 「丞相李公奏議後序」, 「敬齋箴」 등 4편이다. 「무오당의서」는 주자가 封事, 서간 등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金과의 화친 반대 내용을 담은 서문이고, 「왕매계문집서」는 역사 속 다섯 군자와 함께 강토 회복과 金에 대한 주전론의 입장을 견지한 왕매계(왕십봉)가 지금의 군자라고 평가하며 그의 문집에 붙인 서문이며,²⁸⁾ 「승상이공주의후서」는 영토 회복과 金과의 강화를 반대한 북송의 승상 이공(이강)의 저술에 붙인 서문이다.

기타 작품은 송시열이 『절작통편보유』에서 중복을 피해 126편을 선정하면서 선정 편수는 증가했으나 상소문, 서간문에 비해 선정과 활용이 활발하지 못했고, 상소문, 서간문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자대전』 전체의 요약판을 만든다는 성격으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한 면이 컸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조선 성리학자에게 가장 영향을 준 문헌의 하나인 『주자대전』이라는 외래 문헌의 수용 현상에 대하여 『주자대전』 선집서의 편성, 간행과 구성, 작품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자대전』은 1543년에 활자로 처음 간행된 이후, 오류의 수정,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고자 1575년 활자본, 1635년 목판본, 1771년 목판본 등 모두 네 차례 간행되었으며, 거질의 『주자대전』을 수용·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집서가 편성, 간행되었다.

둘째, 『주자대전』의 선집서는 『주자대전』이 간행되기 이전인 1518년 무렵부터 주자의 문집을 구해볼 수 있었던 왕실 종친과 중앙 관료에 의하여 주자의 봉사·주자 15편을 선별한 『주자봉사초략』, 「백록동서원학규」를 뽑아 해설한 『백록동규해』의 간행이 있었다.

셋째, 『주자대전』이 간행·보급되자 16세기에 이황의 『주자서절요』 등 4종의 선집서가 간행되면서 지방의 학자를 중심으로 『주자대전』 이해를 위한 강학과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조선 학자들에게 『주자대전』의 이해라는 큰 흐름을 만들었다. 조선 후기에는 정경세의 『주문작해』 등 7종의 선집서 간행으로 이어졌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신료들의 요청으로 경연 교재로 간행되면서 국왕과 신하를 중심으로 연구·학습되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선집서의 편성은 이황의 『주자서절요』

28) 주자가 왕십봉에게 보낸 편지는 1편이 있는데, 그의 인간됨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5개의 선집서에서 선정되기도 하였다.

를 기점으로 정경세의 『주문작해』로 보완되고, 송시열이 두 선집서를 합하고 누락된 작품을 보완하여 『절작통편』·『절작통편보유』로 종합되는 흐름을 보였다. 후기로 갈수록 선집의 대본은 기존의 선집서로 하면서 『주자대전』을 참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선집서는 강학을 통한 주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 국왕 진강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보존·발췌·조합·초절·주석의 방식으로 편집되었다. 1편의 작품으로 책자를 만든 경우는 3종에 불과하고, 서간문을 대상으로 한 『주자서절요』 등 3종, 주차·봉사를 대상으로 한 『주자봉사초략』 등 2종, 전체 작품을 대상으로 한 『주문작해』 등 5종은 복수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여섯째, 『주자대전』에는 詩를 제외한 3,645편의 작품이 있으며, 그 가운데 13종의 선집서에서 1,734편(47.6%)이 선정되었다. 작품은 상소문·서간문·기타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소문은 306편 가운데 89편(29.1%), 서간문은 2,365편 가운데 1,324편(56.1%), 기타 작품은 978편 가운데 320편(32.7%)이 선정되었

다. 서간문이 편수와 선정률에서 높게 나타났고, 상소문은 봉사·주차 부분(권11-14)은 모두 선정된 반면 나머지 부분(권15-23)은 선정률(20%)이 낮으며, 기타 작품은 선정 빈도가 낮아 『주자대전』 전체의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한 면이 컸다.

일곱째, 누적 선정 횟수가 높은 작품은 조선 학자들의 주자 작품 수용 경향을 보여 준다. 상소문에서는 국왕의 덕목과 자세·정책 제안·금과의 화친 반대에 대한 내용, 서간문에서는 학문과 독서의 방법·불교 등 이단 배척·인재 등용의 방법과 신하의 의무·역사 인물의 평가 기준·붕당의 옹호·학문 토론·금과의 화친 반대와 영토 회복에 대한 내용, 기타 작품에서는 금과의 화친을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내용의 선정 빈도가 높았다.

조선 학자들은 『주자대전』을 선별 수용하면서, 주자의 글을 통하여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스승과 학자의 면모를 배우기도 하였고, 이단 배척, 夷狄과의 주전론, 붕당의 옹호 등 중화주의에 입각한 정치인의 일면을 받아들이고자 한 면도 있었다.

참 고 문 헌

- [1]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 [2]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3] 강문식. 2007. 趙翼의 학문 경향과 『朱書要類』 편찬의 의의. 『한국문화』, 39: 97-133.
- [4] 강문식. 2008. 宋時烈的 『朱子大全』 연구와 편찬 『朱子大全筭疑』·『節約通編』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3: 71-95.
- [5] 강문식. 2013. 宋時烈的 『朱文抄選』의 편찬과 그 의미. 『韓國文化』, 63: 277-307.

- [6] 강진석. 2003. 퇴계 『朱子書節要』 편집의 방법적 특징과 의의. 『퇴계학보』, 113: 51-97.
- [7] 권용인. 2015. 『愚伏 鄭經世의 『朱文酌海』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 [8] 송희준. 2014. 『朱子書節要』와 『朱書百選』의 비교 연구. 『퇴계학논집』, 15집: 257-288.
- [9] 이향준. 2012. 한국 성리학의 해석학적 발전- 『朱子大全』의 주석서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25: 129-160.
- [10] 최경훈. 2018. 『朱子大全』 選集書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11] 최채기. 2013.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그 刊行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http://sjw.history.go.kr>)
- [2] Korea Classical General DB(<http://db.itkc.or.kr/>)
- [3] Kang, Moon-shik. 2007. "Cholk's scholarly tendency and the significance of his Juseoyoryu." *Hanguk Munhwa*, 39: 97-133.
- [4] Kang, Moon-shik. 2008. "Song Si-yeol's study and making compilation work of JujaDaejeon." *Hanguk Munhwa*, 43: 71-95.
- [5] Kang, Moon-shik. 2013. "Song Si-yeol's compilation of Jumunchosun and its political significance." *Hanguk Munhwa*, 63: 277-307.
- [6] Kang, Jin Seok. 2003. "The Characteristic of editorial method and its meaning in the Summary of Zhuxi's Letters." *Toegye Hakbo*, 113: 51-97.
- [7] Kwon, Yongin. 2015. *A study on the Jumunjakhae by Jeong Kyeong-Se, Ubok*, Graduate School of CheongJu University, Korea
- [8] Song, Hee Jun. 2014. "Comparative Study on Jujaseojeolyo and Juseobaekseon." *Journal of Toegye Studies*, 15: 257-288.
- [9] Yi, Hyang Jun. 2012. "The Hermeneutical Development of Neo-Confucianism in Korea." *Journal of Yulgok studies*, 25: 129-160.
- [10] Choi, Kyung Hun. 2018. *A Study on the anthologies of Jujadaejeon*.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11] Choi, Chae Gi. 2013. *Study on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Jujaseojeolyo written by Toegye Lee Hwang*.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